

# 놀이중심 유아교육 아직 '걸음마 단계'

### 교육정책연구소, 전북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실태분석 연구결과, 단순 노는 활동 인식 여전

전라북도교육청의 놀이중심 유아교육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전을식)가 지난해 말 전북공립유치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태분석(연구책임자 오정란) 연구한 결과다. 도교육청은 몇년 전부터 '놀이와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외 활동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이 변화하고 있다.

2016년 유아교육기본계획을 보면 실외활동 중심의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연과 더불어 창의적으로 배워가는 놀이와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정란 연구원이 도내 공립 유치원 교사 2백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2%(2백78명/매우8.8% 대체로 58.4%)가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61.2%(1백75명)는 유아교육이 놀이와 생활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답변했고 33.9%(97명)도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해 높은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치원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는지는 질문에는 24.8%(71명)만이 매우 그렇다고 답변해 적용단계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그렇다는 62.9%(1백80명)로 나타났다. 놀이중심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19.9%(57명)가 매우 그렇다, 56.3%(1



“재벌미화 국정교과서 규탄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정역사교과서저지특위 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관에서 재벌미화 국정교과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61명)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평소 놀이를 이용한 수업을 하고 있는지는 질문에는 15%가 매우 그렇다, 76%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이 교직원 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하루 일과중 실내 자유놀이 시간에 대해선 응답자의 42.6%(1백22명)가 일과의 20%~30% 미만(5시간 중 60분~90분), 32.8%(94명)는 일과의 10%~20% 미만(5시간 중 30분~90분)이라고 답변했다.

또 놀이와 교육과정 연계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19.9%(57명)가 매우 연계성이 높다고 답변했고, 72.7%(208명)은 대체로 연계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관리자나 학부모가 단순 노는 활동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

순위별로 어려움을 점을 묻는 질문을 보면 △놀이가 교육이 아닌 단순 노는 활동이란 관리자(53.5%) 학부모(32.5%) △유아 특성에 맞는 프

그램과 자료 개발 15.4%(44명) △교육 평가방법 개선의 어려움 10.5%(30명) △교육환경 여건 미비 9.8%(28명) 순으로 나타났다.

오정란 연구원은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적정화가 필요하고 누리과정 내용과 수준을 재구조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연구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유치원 기관장 교사 학부모들의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수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해은기자

# 전주시, 아중호수 일대 주차장 · 시민편의시설 확충

### 진입로 위치한 근린공원 약 50면 규모 주차장 · 어린이공원에 생태놀이터 조성

전주시가 동부권 개발의 핵심사업으로 아중호수 일대를 생태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가운데, 아중호수 제방 아래에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일 주차장이 설치된다.

전주시는 아중호수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올해 총 2억원을 들여 아중호수 진입로에 위치한 근린공원에 약 50면 규모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아중호수에 수변산책로가 조성되고 야간경관이 설치되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아중호수를 찾는 시민·관광객 편의와 인근 불법주차장 문제 해소,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아중호수 진입·출입부에 위치한 근린공원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확충기로 했다.

시는 실시계획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침체일로에 있던 전주 아중호수 관광벨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2017년도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향후 근린공원과 인접해있는 어린이공원에 생태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아중호수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아중호수 제방 아래쪽에 위치한 완충녹지를 근린공원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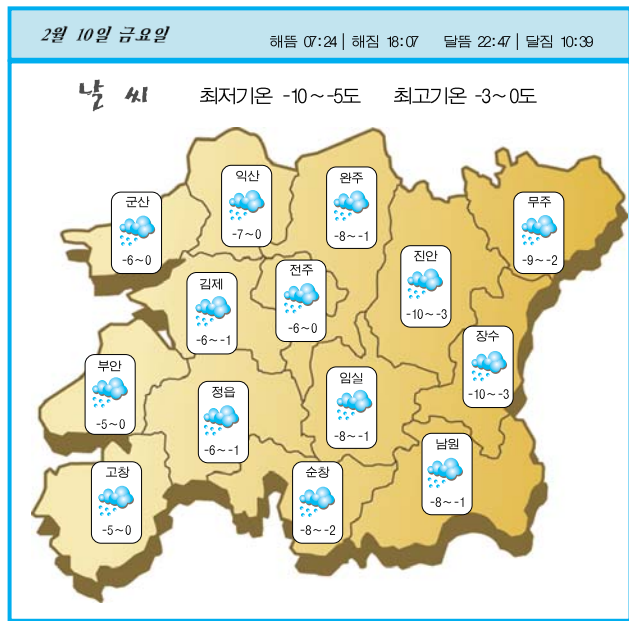
시는 또 4억원을 들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정자 2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인접 어린이공원과 연결하는 인도교도 설치했다.

이와 관련, 시는 동부권 개발의 핵심인 아중호수 주변을 되살리기 위해 오는 2018년 말까지 총 50억원을 들여

아중호수에 생태산책로와 생태놀이터, 소풍마당, 가족 숲 등을 갖춘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아중호수 주변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지면 한옥마을에 집중한 관광객들의 동선이 아중호수와 주변 호동골 자연생태학습원, 아중역 레일바이크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중호수 일대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확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장 초청특강

## ‘인공지능(AI) 교육혁신’

22일 도교육청 2층 대강당

전라북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과 교육혁신을 주제로 초청특강을 개최한다. 도교육청이 본격화되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시대를 앞두고 교육의 변화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장을 초청, 22일(목) 오후7시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특강을 갖는다. 강 소장은 독일 비텐대학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원, 오픈트 이사로 활동 중인 정보통신

기술(ICT) 비평가이다. 강 소장은 과거 기계·자동화가 단순 노동을 대체했다면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근 기술혁신은 숙련 노동을 대체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래세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전문가 등 인재들이 교육현장을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함께 아이들이 인터넷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해 스스로 지식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교육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정해은기자

# 도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추진

### 유관기관 협력 심폐소생술 · 교통안전 · 가스안전 등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안전정책 일환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9일 도교육청은 전북교통문화연구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회 등 안전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통안전, 가스안전 등을 주제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며 2시간 가량 학급단위 또는 소규모 체험식 안전교육 형태로 진행해 학습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해은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행복한 교사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